70여 개국에 수출하는 'K루브' 대표 브랜드

산업(정유-에너지) 에쓰-오일㈜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대표 ★★

에쓰-오일㈜의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사진) 대표가 '2021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산업(정유-에너지) 부문에서 수상했다. 2년 연속이다.



에쓰-오일은 '수익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창의적 CEO 리더십에 기반을 둔 중장기 비전과 전략과 제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고·열정·정도·협력·나눔의 핵심가치를 모든 임직원이 공유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친환경제품 수출에 매진해 정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변화시켰고, 선도적인 투자를 통해 석유화학하류 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글로벌 윤활기유 공급 메이커이자 전 세계 70여 개국에 윤활유를 수출하는 K루브(Lube) 대표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에쓰-오일의 정유와 석유화학 및 윤활 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사업구조는 기업경쟁력을 평가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ISI)'의 'DJSI World' 부문에서 에쓰-오일이 아시아지역 정유사 중 처음으로 11년(2010~2020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원동력이 됐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지원사업 실시

사회공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정희수 위원장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이하 사회공헌위)의 정희수(사진) 위원장이 '2021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사회공헌 부문에서 수상했다. 3년 연속이다.



생명보험업계는 2007년 업계 자율협약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회공헌위 산하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생명보험협회)·지정법인 등 3개 운영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생명에 사랑을 더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생명존중·상부상조·생애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예방 지원사업, 생명존중문화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한강 교량에 SOS생명의전화를 운영한다. 또한 저소득 아동에게 온라인학습을 지원하는 생명숲꿈이룸 지원사업과 생명숲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숲 Baby&Mom 힐링센터와 태아건강검진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송덕순 중앙일보M&P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시스템 설계·제작까지 포괄적 서비스 제공

제조품질 가보㈜ 오승원 대표 ★★★★★

가보㈜의 오승원(사진) 대표가 '2021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제조품질 부문에서 수상했다. 5년 연속이다.



가보는 전력 산업 보호시스템, 전력감시 제어, 태양광발전 감시, 원격소제어, 수질원격감시 등 제어 및 감시시스템 분야의 전문 업체다. 다년간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설계부터 제작, 엔지니어링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보는 2003년 설립 이후 한전·한수원·포스코·중전기기업체 등에 관련 제품을 납품하며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기술의 우수성은 ▶2017년 제43회 국가품질상 유공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독일 지멘스사와의 Advanced Partnership 체결 ▶2018년 한국전력공사 기자재 품질 최우수기공급사 선정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 모범중소기업인 유공자 대통령 표창과 같은 성과를 통해 확인된다.

가보 오승원 대표는 인재 경영에도 힘써왔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인증 재취득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직원을 채용해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전문대 중 첫 마이스터대시범운영사업 선정

산업(교육) 대림대학교 황운광 총장 ★★

대림대학교 황운광(사진) 총장이 '2021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산업(교육) 부문에서 수상했다. 2년 연속이다.



1977년 개교한 대림대학교는 '올바른 인성과 혁신역량을 보유한 사명감이 투철한 직업인 육성'을 사명으로 한다. '입학이 취업이다'를 슬로건으로 '최고의 취업'으로 말하는 대림대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 2019년 졸업자 기준 취업률 75.8%(대학정보공시 기준)를 기록해 수도권 최상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돼, 교육부가 지원하는 일반 및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참여,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에도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전문대 최초로 마이스터대시범운영사업에 선정돼 '종합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미래자동차분야)'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등에도 선정돼 혁신을 지속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송덕순 중앙일보M&P 기자

탄소 감축과 채용 확대로 지역사회와 상생

산업(외식서비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송호섭 대표 ★★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의 송호섭(사진) 대표가 '2021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산업(외식서비스) 부문에서 수상했다. 2년 연속이다.



스타벅스는 일회용 컵 전면 사용 중단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중장기 전략인 'Better Together 프로젝트'를 지난 4월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해 탄소 30% 감축과 채용 30% 확대를 목표로 ▶1회용품 절감 ▶식물 기반 제품 및 지역 상생 제품 확대 ▶친환경 매장 확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 등 5가지 세부 과제가 2025년까지 진행된다.

지난 7월부터 제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 컵 없는 매장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2025년에는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중단, 리유저블컵만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포장재·용기·스푼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방침이다.

스타벅스는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중장년, 경력 단절여성 등의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역시 강화해 2025년에는 전체 임직원의 10%를 취업 취약 계층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국내 수입육 시장 매출과 유통 점유율 1위

〈우육·돈육〉

글로벌 ㈜하이랜드푸드 윤영미 대표

㈜하이랜드푸드의 윤영미(사진) 대표가 '2021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글로벌 부문에서 수상했다.



하이랜드푸드는 수입육 도소매 및 육류가공 식품 전문 기업으로 1999년 창립 이후 지속해서 성장하며 '국내 수입육 시장에서 매출 1위, 물량 1위, 우육·돈육 유통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세계 16개국 50여 해외 공급자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장기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는 2000여 개 거래처에 유통하며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또 계열사인 하이랜드이노베이션과 웰본, OEM 업체를 통해 육류 제조가공업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이랜드푸드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9%의 매출 증가를 이뤄냈으며, 올해 그룹사 총 매출 850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선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성장 500대 기업'에 2년 연속(2020·2021) 선정됐다.

하이랜드푸드는 자체 ERP 시스템, 창고관리 시스템(WMS), 생산시점관리(POP) 시스템 구축 등 혁신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덕순 중앙일보M&P 기자

산업 폐기물서 유용 자원 회수, 국내외 공급

환경경영 성일하이메탈㈜ 홍승표 대표

성일하이메탈㈜의 홍승표(사진) 대표가 '2021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환경경영 부문에서 수상했다.



성일하이메탈은 2000년 산업 폐기물에서 귀금속 및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설립된 자원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으로, 올해 2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설립 초기인 2004년부터 중국 천진에 진출해 귀금속 리사이클링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영역도 전자산업 폐기물에서 시작해 석유화학산업, 제약, 환경산업의 폐촉매 회수까지 확대했다. 과거에는 귀금속이 다량 함유된 폐기물이 국내 기업의 기술 부족으로 대부분 일본·유럽·중국 등지로 수출됐는데, 이제는 성일하이메탈이 앞선 기술로 자원을 회수해 국내외 산업에 소재로 공급한다.

성일하이메탈은 2006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친환경 고효율 회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19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7건을 출원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한 연구 과제를 통해 2011년 제8회 으뜸기술상, 201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외국 의존도 높은 핵심 반도체 소재 국산화

연구개발 영창케미칼㈜ 이성일 회장

영창케미칼㈜의 이성일(사진) 회장이 '2021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연구개발 부문에서 수상했다.



2001년 설립된 반도체 소재 제조 전문기업 영창케미칼은 외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해 국내 대표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가장 외국 의존도가 높다고 알려진 핵심 소재 반도체 포토 공정에 적용되는 린스·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종합 반도체 회사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급하고 있다.

현재는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LED 소자, LCD 및 OLED 패널과 SOLAR CELL 제조 등 디스플레이, 친환경에너지 산업 첨단 소재를 공급하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매출액 대비 10% 이상으로 과감하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거듭해 연간 10여 건 이상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영창케미칼은 친환경·안전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 생산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회사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무재해 근로 환경을 유지해 오고 있다. 송덕순 중앙일보M&P 기자